

#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인공위성을 탄 방랑자 알렉소스



Terrace Court, C print, 101.6x81.3cm, 2005

“너무 진지해!” 각종 국내 영화제에서 모더레이터로 일하다 보면 해외 감독들에게 늘 듣는 소리가 있다. 한국 관객은 어느 나라보다 열정적이고 수준이 높지만 지나치게 진지하다는 말이다. 특히 관객이 “특정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파고 든다는 것이다.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런 말을 들어 왔다. 그런데 메시지에 관한 집착은 영화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예술 영역에서든지 먼저 메시지나 서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고질병이다. 오감과 감성보다는 의미만을 강조해온 우리 예술 교육의 현주소다, 그래서인지 “메시지는 없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작가들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 처럼 시원함을 느끼곤 한다. 알렉소스도 그랬다. “메시지는 없다. 내 사진은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거침없이 밝혔다. 매그넘 출신의 이 작가는 박찬욱 감독이 <박쥐>를 촬영하며 그의 사진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갑자기 국내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알렉소스 개인전에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작품 수가 많지 않다는 게 몹시 아쉽지만, 그의 대표작 ‘보고타’시리즈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일상 풍경을 독특한 감성으로 전달하고 있다. 의자 위에 올라간 닭이나 언덕에 앉은 개, 정물화처럼 구도를 잡은 포도등은 일견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기나긴 여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알렉의 렌즈가 포착하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다. 다소 명하고 혼란스러우며 회의적인 정서가 묻어난다. “난 보고타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고, 심지어 스페인어도 못한다.”고 고백한다. 그는 이곳을 순수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알렉의 사진에 담긴 풍경은 보고타나 나이아가라에 대한 일반인의 경험, 여행객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자신만의 감각으로 사랑과 열망에 대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낸 골딘처럼 삶과 섹슈얼리티를 강렬하게 폭로하기 보다는 심미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탐사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는 밥 말리의 노래처럼 자유롭게 열린 세상을 축복하게 만든다. 하나의 허구적 대상을 다큐멘터리적인 감각으로 현실화하는 알렉의 사진 언어는 시적 이미지를 추구한다. 결코 현실과 픽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런 작업은 혼돈이 아니라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다채로움을 생산하리라는 직감에서 기인한다. 또한 그는 대기권을 떠도는 방랑자이자 관찰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피사체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인공위성처럼 부유하고 있다.

사실 그가 비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미국 사진역사의 퇴적층이다. 윌리엄 이그르스톤, 로버트 애던스처럼 일상이나 풍경을 독립적인 개체로 생생히 담아내고 있다. 절제된 빛의 사용이나 한정된 색감을 선호하는 등의 스타일도 다분히 미국 사진의 계보를 잇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우주 헬멧을 쓰고 세상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 평범한 피사체에 접근해도, 그의 이미지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헬멧을 투과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의 독특함은 전적으로 시선(지각하려는 열정)에서 유래한다. 알렉소스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처럼 상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오직 한 사람의 독자,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을 써야 한다.” 그것이 작가가 도달해야 할 숙명이자 숭고한 진실이다.

엘라서울 전종혁